

“직접고용 쟁취해 웃는 얼굴로 만납시다”

현대제철 직접고용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 “현대차 자본이 집단해고 추진”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를 걸고 파업과 농성 등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회와 결의대회를 열고,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는 현대자동차 자본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금속노조가 8월 25일 오후 3시 현대제철 당진공장 안팎에서 ‘현대제철 직접고용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날 대회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90여 명이 점거 중인 당진공장 통제센터 로비 ▲당진공장 C지구 정문 안 대로 ▲C지구 정문 밖 등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전국에서 모인 금속노조 조합원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2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강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지난 7월 현대제철이 일방으로 자회사 설립을 발표하고, 15개 업체가 폐업했다. 업체 소속 노동자 2,500명 중 자회사로 간 인원을 제외한 1,000명은 해고자가 된다”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수십 번 회사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응하지 않았다”라며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 배경을 설명했다.

이강근 지회장은 “회사가 정한



자회사 등 전환배치·전직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된다. 8월 25일 오늘이 현대제철 자회사 ITC 공정 발표일이다. 회사의 일방 발표를 통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라며 “이에 23일 쟁대위 이후 조합원 180명이 기습 점거에 돌입했다. 현재는 부상자와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90여 명이 점거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강근 지회장은 “원청과 업체에 계속 교섭을 요청하고 있다.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라면서 “끝까지 노동조합을 믿고 따라준 동지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반드시 승리하고 웃는 얼굴로 동지들과 만나겠다”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공장

C지구 대로 연단에 올라 “우리가 옳다. 직접고용 쟁취하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총파업 사수하면서 함께 해보자. 앞장서서 투쟁을 조직하겠다. 우리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계속 대화를 거부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투쟁으로 맞서겠다”라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김찬호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장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응원했다. 김찬호 지회장은 “구조조정 당해 울산에서 당진으로 왔다. 구조조정 과정과 아픔을 알고 있는 저는 어떻게 투쟁에 도움을 드릴까 고민 중이다. 충남지부와 협의해 방법을 찾겠다”라고 약속했다.

정용재 금속노조 충남지부장과 문

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이 자회사 쫄수와 노동조합 무시로 일관하는 현대차 자본을 규탄하고, 투쟁에 나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을 향해 연대의 말을 전했다.

정용재 지부장은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8년 동안 벌이고 있다. 가슴 아프고, 또 자랑스럽다. 물러설 수 없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용민 본부장은 “동지들 투쟁은 법으로

도, 상식으로도 당연하고 정당하다. 현대차 자본이 계속 동지들 요구 뭉갠다면 예정된 세종충남본부 6만 총파업대회를 이곳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열겠다” 라고 선언했다.

현대차, 안전장치 없이 노동자 고위험 작업 내몰아 19일 울산 3공장 화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 “현대차 원청 강력 처벌해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8월 19일 하차 작업을 하던 화물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숨졌다. 지난 1월 스크랩 철거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일곱 달 만에 같은 공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금속노조는 노동자 죽음을 막지 못한 현대자동차와 노동부 울산지청을 규탄하고, 특별감독·원인규명과 강력한 처벌 등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가 8월 23일 오전 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에 ▲대표이사 사과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노동부에 ▲사업주 구속·처벌 ▲울산공장 전체 하차장 작업중지명령 ▲전 공장 특별감독 등 종합 안전보건진단 시행을 요구했다.

8월 19일 13시 30분쯤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 하차장에서 제품 하차 작업을 하던 화물노동자가 설비와 작업장 계단 사이에 끼었다. 하차장 밖에 있던 다른 화물노동자가 앞 차량이 나오지 않자 확인하려 하차장에 들어갔다가 사고노동자를 발견했다. 사고노동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하차장은 화물차에 실

린 제품을 대형 리프트를 이용해 작업장으로 투입하는 곳이다. 차량을 운행하는 화물노동자가 직접 리프트를 조작해 제품을 하역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공장별로 동·일·유사 작업장이 여러 군데 있고, 모두 1인 작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형 리프트로 각종 자재와 제품을 하역하는 업무 특성상 끼임, 충돌 등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사고가 발생한 설비 주변 안내판에 ▲안전장치 변칙 사용 절대 금지(플러그 고리 탈거, 안전 매트 이동, 안전을 넘는 행위 등) ▲드롭리프트 작동 무인공정 출입 금지 등 각종 안전수칙이 적혀있지만,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에 안전장치가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안전보건실은 작업자가 일하는 조작패널과 리프트 사이에 방호울과 안전플러그가 없고, 위험상황 발생 시 설비 작동 중지하는 센서도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제품 하차 과정에 각종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 현대차는 문제 상황 안전 작업절차와 작업 방법을 알리거나

교육하지 않고 작업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했다” 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대차가 리프트 운행을 담당하는 별도의 노동자를 배치하지 않아서, 화물노동자가 혼자 상·하차하고 문제 상황 조치까지 해서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 울산지청은 7개월 전 사고 때와 똑같이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다” 라면서 “지난 1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했다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라고 노동부 울산지청 행태에 분노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현대자동차 재벌에 1차 문제가 있고, 원청의 탐욕과 불법을 계속 눈감고 방관한 노동부에 2차 책임이 있다” 라면서 자본과 정부를 규탄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 전체 하차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철저한 조사로 원인을 밝혀야 한다” 라며 “더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도록 현대자동차를 확실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라고 촉구했다.

“자본만 행는 대구시, 한국계이츠 해고사태 반복하나”

대구지부, 정리해고 해결 촉구 단식농성 ... “산업전환 대응 노정협의체 만들자”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8월 25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한국계이츠 투쟁 승리, 금속노조 대구지부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 노동자들은 대구시가 산업전환에 따른 대구 제조업 노동자 보호 장치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3년간 미래산업 유망기업을 선정해 1조 1,963억 원을 투자했다. 2021년을 ‘기업 유치 총력의 해’로 삼고 대구시 유치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한도를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노조 대구지부는 “대구시는 기업 투자 예산은 계속 늘리면서 대구노동자들이 어떤 피해를 볼지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산업전환 대응과 노동자 고용안정 정책 마련을 대구시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윤종화 노조 대구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전기·수소차 생산 확대 등으로 자동차부품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라며 금속노조와 노정공동협의체를 꾸려 대책을 논의하자고 대구시에 제안했다.

대구시가 노동자들 요구에 흔쾌히 응답할까? 노조 대구지부는 올해 4월 권영진 대구시장 면담과 5월 한국계이츠지회 대구시청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대구시에 노정공동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지난 7월 21일 금속노조 2021년 1차 총과업에 들어가며 재차 요구를 전달했지만, 대구시는 사실상 거부 취지의 공문한 장 보낸 이후 묵묵부답이다.



윤종화 노조 대구지부장은 “자동차 부품사들이 대구 일자리의 큰 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나, 대구의 큰 자동차부품 사업장인 한국계이츠는 산업전환을 빌미 삼아 집단 정리해고를 했다”라며 “산업재편에서 노동자 희생이 불 보듯 뻔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노동자를 내팽개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대구지부 한국계이츠지회는 이날 정리해고 철회 투쟁 426일, 대구시청 천막농성 105일 차를 맞았다. 한국계이츠는 지난해 6월 폐업했다. 한국계이츠 사측은 연이은 흑자에도 미래자동차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금속노조에 대구공장 폐업을 일방 통보했다. 한국계이츠 노동자 147명 전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윤종화 지부장은 “한국계이츠가

미래산업 대응 운운하며 후자 폐업을 밀어붙였다. 대구시가 지금처럼 자본만을 위한 행정과 기업 중심 산업전환 정책을 고집한다면 한국계이츠 같은 사태는 계속 터진다”라며 “다시 요구한다. 대구시는 하루빨리 금속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노동자 고용안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채봉석 노조 대구지부 한국계이츠 지회장은 “한국계이츠 위장폐업으로 공장에서 내쫓긴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대구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며 “노동자 생존권을 외면한 대구시가 한국계이츠 공장 터를 사는 기업을 2년 동안 지원한다고 나섰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채봉석 지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 외친 대구시의 자본 편향 정책이 한국계이츠 위장폐업에 한몫했다고 지적하며 “한국계이츠 집단해고 같은 비극이 대구에서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대구시는 한국계이츠 해고 문제 해결과 대구 제조업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노조 대구지부는 이날 윤종화 지부장을 시작으로 대구시가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채봉석 지회장,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등으로 단식농성을 확대한다. 대구시 노동정책 부실과 노정공동협의체 필요성을 대구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10월 20일 민주노총 총과업 조직화로 대구시를 압박할 계획이다.